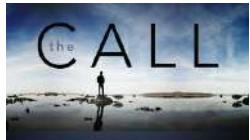


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아
나도 너희를 보내노라(요
20:21)



SARANG ON

사명, Calling the Reason I Live

Reading 요한복음 20:21-23 _[본문 세 번 이상 읽기]

-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
-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
-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

Thinking

1.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“평강이 있을지어다(19, 21절)”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?(21절)
2.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, 더불어 함께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?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?(22-23절)
3.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 ‘사명자’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.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삶에서 ‘사명자’로 살아가고 있나요? 나의 모습을 돌아봐요.
4.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?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오늘 실천할 일을 적어보세요.

Praying

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소망의 빛으로 오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,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, 우리에게 ‘평강’을 주시며 우리를 ‘사명자’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.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니, 우리가 부름 받은 그 자리에서 중인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.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, 아멘.